

# 『道德經』의 인식론과 『黃帝內經』의 사상 비교연구

金度勳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The epistemology of 『Dodeok-gyeong(道德經)』 and the idea of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the relation of each other

Kim Do-Hoon

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is mainly on the epistemology of 『Dodeok-gyeong(道德經)』 and 『Hwangje-Naegyong(黃帝內經)』, and the relation of each other. Among the conclusions, following things are worth mention.

The point of 『Dodeok-gyeong』 can be said as the epistemological "Do(道)". When it expressed as something, it cannot be the original form. This principle can be applied to 『Hwangje-Naegyong』 in the flow of Gi(氣) and in the property of movement of Eumyang-Ohaeng(陰陽五行). In 『Dodeok-gyeong』, the notions of the relativity of all things, come out as interpromotion and interacting. It can be related to the typical etiology and pathology of the Eastern medicine. In 『Dodeok-gyeong』, the emphasis on woman which represents the 'Eum' also emerged well in 『Hwangje-Naegyong』. 『Dodeok-gyeong』 emphasize on the relative value of the contrasted things. In the Eastern ideas, the smallest thing can be the same as the largest thing with the exception of comparison of each other. As the same way, the human body can be the small cosmos, and the Heaven and human beings correspond to each other.

key words : 『No-ja』, 『Dodeok-gyeong』, 『Hwangje-Naegyong』, epistemology.

## I. 緒論

『老子』 혹은 『道德經』은 老子라는 사람의 저작으로 春秋時代에 성립하여 가감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오다가 魏나라 王弼에 의해 편집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널리 전승하여 내려온 道家

\* 교신저자 : 김도훈,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  
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chulian@khu.ac.kr Tel : 02-961-0337

철학, 아니 동양철학의 대표적인 저작이다.

老子라는 인물은 정확한 생몰의 시기가 불명이지만, 『老子』라는 책이 동아시아 문명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老子라는 인물의 출몰을 차치하고라도, 儒家사상을 넘어선 기저에서 동양인의 의식구조를 지배해 온 이 저작의 사상적 가치는 확고하다고 하겠다. 『黃帝內經』으로 대표되는 한의학의 사상들 역시 黃老之學으로 병칭되면서 道家사상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서 독자적 체계를 완성시켜 왔다.

『老子』는 책이 성립된 후에 도가계통의 『莊子』, 『抱朴子』, 『韓非子』, 『列子』 등의 諸子書들의 바탕이 되었고, 전국시대 말엽부터 중국에서 神仙思想이 유행하여, 秦漢代에 불로장생을 위주로 하는 方士들이 수없이 등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後漢때 張道陵이 道教를 창시하고 도교의 경전으로써 『老子』를 책정하고 외우게 함으로써 老子의 신선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悅生惡死의 개념을 강조하여 원래 노자에서 드러난 도가사상과는 다른 도교의 내용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도교의 내용들이 醫學의 내용과는 더 밀접한 연관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老子』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된 내용은 道 즉, 존재하는 것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老子의 無爲사상, 自然사상, 무차별에 관한 내용, 長久할 수 있는 기본 바탕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인식론은 언어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1)</sup>.

1) 본 논문은 1999년 4월에 진행된 民族文化推進會 李相鉉 선생의 “『老子』講義”와 1999년 겨울, EBS 방송을 통해 전국에 중계된 樞樞 金容沃의 “노자와 21세기”가 2000년 6월부터 재방송된 것, 그리고, 2000년 1학기(5월 3일-7월 12일) 成均館 翰林院 宋恒龍 선생의 “『老子』講義”의 강의록(이상 모두 본인 작성) 등에서 『老子』라는 책의 전반적 내용을 살피고, 韓醫學적인 영감을 위해서 2000년 1학기에 慶熙大學校 白上龍 선생과 다시 『老子』를 읽은 부분을 소재로 하여 작성한 것을 다시 손을 보아서 투고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인식론적인 言名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黃帝內經』의 의학적 내용들과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변형이 되었나를 『老子』의 구절과 『黃帝內經』의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연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 II. 本論

### 1. 言名의 세계

“道를 말할 수 있다면, 항구불변의 道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형식이 없는 상태는 하늘과 땅의 시작을 이름한 것이며, 어느 정도 속성이 있는 상태는 만물의 어미를 이름한 것이다. 본디, 항상 없음으로써 그 오묘함을 관찰하고자 하며, 항상 있음으로써 그 가장자리<sup>2)</sup>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有와 無)는 동일함에서 나왔으나 이름이 다른 것이니 함께 깊고 넓은 현묘함이라고 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일체의 변화하는 오묘함의 문이 된다.”<sup>3)</sup>

라고 한 『道德經』首章은 言名(혹은 言語)의 세계를 다루고 있으며, 인식론적인 “道”의 핵심이 드러난다. 표현할 수 있는 “道”는 늘 그러한 불변의 도가 될 수 없다. 즉, 말의 표현에 묶이게 되면 그것은 살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말의 개념을 定義를 할 경우에 개념이 정의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살아 있는 개념이 될 수 없다. 도라는 것은 항상 현존하

다. 당시 講讀을 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2) 微 : 가장자리, 변두리 등의 뜻으로 현상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3) 『老子』 :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 名天地之始, 有, 名萬物之母, 故常無, 欲以觀其妙, 常有, 欲以觀其微,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一章」

면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現前實在”에 대한 것이며, 그 주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가 이름이 있기 전에는, 즉 개념이 없을 때가 바로 천지의 시작이 된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식론적 개념이 된다. 인식 범주 밖의 본래의 것이 인식에 의해 모든 존재자의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일단 개념으로 표현된다면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생명의 기틀(베커니즘)이 움직이는 것은 그 빔을 떠나지 않으니, 빈 속의 기틀은 맑고 고요하며 은미하여, 그것(기의 흐름)이 음을 맞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떠나감을 쫓아 갈 수도 없습니다.”<sup>4)</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針의 기술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氣의 흐름, 즉 “無”의 상태를 잡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道德經』의 내용에서는 “無”의 상태에 의해서 혼돈된 상태의 묘함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 때 이 “妙”함이란 言名에 의해서 구별에 의해 밝힐 수 없는 실제의 세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마지막을 아득히 파악하기 힘든 “道”의 상태, 즉 실재하는 세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현묘함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道가 되며, 땅에 있어서는 化生함이 됩니다.”<sup>5)</sup>

라고 한 부분을 『道德經』의 “玄之又玄”이

4) 『靈樞·九鍼十二原』: “小鍼之要, 易陳而亂入, 難守形, 上守神, 神乎神, 客在門, 未親其疾, 惡知其原. 刺之微在速遲, 難守關, 上守機. 機之動, 不離其空, 空中之機, 清靜而微, 其來不可逢, 其往不可追. 知機之道者, 不可掛以髮, 不知機道, 叩之不發. 知其往來, 要與之期, 難之闔乎, 妙哉, 工獨有之.”

5) 『素問·六元正紀大論』: “岐伯對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나타내는 실제파악의 아득함과 연관시켜 볼 때, 『內經』에서 “玄”은 “無爲”함으로써 “無不爲”한 상태, 즉 별 작위적 조작이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지 않음이 없는 하늘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道”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해지는 생리적 규율이 되며, “化”란 땅이 만물을 化生하는 역할, 즉 “有”의 작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五行의 속성에서의 원리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素問·八正神明論』에서

“그 아득하고 아득한 곳을 관찰해 보건대, 形氣의 營衛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훌륭한 의공은 홀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아도 드러나지 않으며, 맛을 보아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득하고 아득하다고 하니, 마치 神과 같이 어른거립니다.”<sup>6)</sup>

라고 한 부분에서, “冥冥”은 아득히 가물거리는 것이니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체 營衛氣血의 은미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이는 그 변화를 이치로 헤아릴 수 있는 “工”만이 홀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인체 營衛氣血의 변화는 은미하고 미묘하여 자취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형태나 맛이 있지 않다. 그러나 “上工”은 그 와중에서 진정한 본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冥冥”이라 규정하고, 그 가운데서 神처럼 어른어른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陰陽의 법칙을 본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岐伯이 답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나와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점을

6) 『素問·八正神明論』: “觀其冥冥者, 言形氣榮衛之不形於外, 而工獨知之, 以日之寒溫, 月之虛盛, 四時氣之浮沈, 參伍相合而調之, 工常先見之, 然而不形於外, 故曰觀於冥冥焉. 通於無窮者, 可以傳於後世也, 是故工之所以異也, 然而不形見於外, 故俱不能見也. 視之無形, 嘗之無味, 故謂冥冥, 若神桴桴.”

살피고, 어리석은 사람은 차이점만을 살핍니다. … 그러므로 聖人は 작위적으로 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함을 즐기실 수 있고, 비어있어서 드러남이 없음을 지키시며 하고자함을 따르고 뜻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명이 끝이 없어서 천지와 함께 마치시니 이러한 경지가 성인께서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sup>7)</sup>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陰陽”의 氣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陰陽”의 氣는 근원이 같은 데서 나와서 이름이 달라졌다고 보아서 “氣一元論<sup>8)</sup>”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爲無爲”의 사상을 통해서 인위적 작위를 말고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감에 의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靈樞·決氣篇』에서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 내가 듣기에 사람은 精, 氣, 津, 液, 血, 脈 등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컨대 이는 하나의 氣일 따름이오. 그런데 이제 여섯 가지의 이름으로 구분이 되니, 나는 그 까닭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소.”<sup>9)</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체의 氣에 대한 『內

經』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즉 精, 氣, 津, 液, 血, 脈 등이 모두가 하나의 본원에서 나왔다는 관점을 밝혀 주고 있다. 결국 인체를 관찰할 때 이러한 하나의 “一氣”를 각기 나누어서 파악하려고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 2. 만물의 상대성

“천하에서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됨을 알고 있지만 이는 추악한 것일 뿐이다. 모두 선함이 선함이 됨을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음일 뿐이다. 원래 ‘有’와 ‘無’는 서로를 낳으며,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어짐이 있도록 해 주며, 악기의五音과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聖人は 자연스럽게 억지로 함이 없는 일을 하고, 말로 드러남이 없는 가르침을 행하고, 만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맡아서 주관하지<sup>10)</sup> 아니한다. 날아주되 사유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서도 으시매지 않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도 독차지하지 않는데, 공을 독차지하지 않으므로 공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된다.”<sup>11)</sup>

라고 한 『道德經』 2장에서는 만물의 상대성과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개념들이 서로 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相生”, “相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有無와 貧富, 長短, 高下, 音聲의 조화, 前後 등의 대비적 개념들은 서로에 의해 서로를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7) 『素問·陰陽應象大論』: “帝曰: 法陰陽奈何. 岐伯曰: 陽勝則身熱, 腠理閉, 喘滿爲之仰仰, 汗不出而熱, 齒乾以煩冤腹滿, 死, 能冬不能夏. 陰勝則身寒汗出, 身常清, 數慄而寒, 寒則厥, 厥則腹滿, 死, 能夏不能冬. 此陰陽更勝之變, 病之形能也. 帝曰: 調此二者, 奈何. 岐伯曰: 能知七損八益, 則二者可調, 不知用此, 則早衰之節也. 年四十, 而陰氣自半也, 起居衰矣.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年六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 故曰: 知之則強, 不知則老, 故同出而名異耳. 智者察同, 愚者察異, 愚者不足, 智者有餘, 有餘則耳目聰明, 身體輕強, 老者復壯, 壯者益治. 是以聖人爲無爲之事, 樂恬憺之能, 從欲快志於虛無之守, 故壽命無窮, 與天地終, 此聖人之治身也.”

8) 氣一元論: 원래 氣는 하나의 氣가 있을 따름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氣一分論” 정도의 내용을 지적한다고도 하겠다.

9) 『靈樞·決氣篇』: “黃帝曰: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今乃辨爲六名, 余不知其所以然.”

10) 辭: 원래 ‘사양하다’라는 뜻인데, ‘맡아서 주관하다’라는 “司”와 통용됨으로 보았다.

11) 『老子』: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 是以不去.” “二章”

이는 韓醫學의 대표적 病因病理 학설과 연 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正氣의 허실에 따 라 邪氣의 허실을 결정하는, 즉 “正氣위주의 發病觀”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즉, 『靈樞·刺法論』에서

“正氣가 인체 내부에 있으면 邪氣가 침범 할 수 없다<sup>12)</sup>”

라고 하였고, 『素問·評熱病論』에서

“邪氣가 흘러 들어오는 곳은, 그 氣가 반드시 虛하다<sup>13)</sup>”

라고 하였으며, 『靈樞·口問』에서

“邪氣가 있는 곳은 모두 (正氣가) 부족한 것이다<sup>14)</sup>”

이라고 하였으며, 또, 『難經』에서

“그 허함을 다스릴 수 없으면 어찌 그 나머 지를 묻겠는가?<sup>15)</sup>”

라고 한 것들은 모두 正氣의 虛實의 상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虛實의 관계를 파악한 것이 韓醫學의 근본 病理觀點이라고 볼 수 있다. 즉, “正虛”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인체의 건강상태가 결정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難經』에서도 “虛”의 상태를 치료함을 근본으로 보았던 것이다. 『靈樞·官能篇』에서

“『鍼論』에 말하기를 ‘재대로 된 사람을 얻어야 전수해 줄 것이며,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말해주지 말 것’이라고 하였는데…’ 黃帝께서 담하시길 ‘각기 재대로 된 사람을 얻어서, 각각의 재능에 맡기므로 그 일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官能”, 즉 신체기관의 기능의 분별적 특징과 함께 각기 그 기능에 따라 맡은 바를 함에 따라 物物마다 스스로 능함을 이루어 주는 것이, 인체 생명활동 영 위의 바탕이 됨을 말하고 있다. 즉, 각기 쓰임 이 있다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醫道의 전 수에 있어서 참된 의도를 전할 만한 계대로 된 사람을 선택함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는 각각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살려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莊子·齊物論』에서 “齊物”의 의미와 相通되는 면이 있 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퓌쎈도 소리 하나 하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음악에서 의 조화(Harmony)는 하나하나의 소리가 제 역할을 할 때만이 비로소 음악이라는 하나의 교향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齊物論』에 나온 “天賴”의 의미가 또한 각각이 가진 모든 소리를 다 개성대로 살려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陰陽의 관계를 또한 이와 같이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道德經』에서 ‘聖人은 無爲에 처하여 걸으 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은 「四氣調神大論」에서 ‘천지자연의 변화에 맞추 어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즉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하늘이 밝음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인데 밝지 못하면…天地의 四時가 서로 보호해 주지 못하여 도와 서로 어긋난다면 알맞지 못 가서 끊어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聖人만이 이런 이치를 따르므로 몸이 기이한 병이 없

傳, 非其人勿言, 何以知其可傳. 黃帝曰: 各得其人, 任之其能, 故能明其事. 雷公曰: 願聞官能奈何. 黃帝曰: 明目者, 可使視色. 聰耳者, 可使聽音. 捷疾辭語者, 可使傳論. 語徐而安靜, 手巧而心審諦者, 可使行鍼艾, 理血氣而調諸逆順, 察陰陽而兼諸方. 緩節柔筋而心和調者, 可使導引行氣. 疾毒言語輕人者, 可使唾嚙吮病. 爪苦手毒, 爲事善傷者, 可使按積抑痺, 各得其能, 方乃可行, 其名乃彰. 不得其人, 其功不成, 其師無名. 故曰, 得其人乃言, 非其人勿傳, 此之謂也.”

12) 『靈樞·刺法論』: “黃帝曰: 余聞五疫之至, 皆相染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不施救療, 如何可得不相移易者. 岐伯曰: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天牝從來, 復得其往, 氣出於腦, 卽不邪干.”

13) 『素問·評熱病論』: “岐伯曰: 邪之所湊, 其氣必虛, 陰虛者, 陽必溢之, 故少氣時熱而汗出也. 小便黃者, 少腹中有熱也.”

14) 『靈樞·口問』: “邪之所在, 皆爲不足”

15) 『難經』: “七十五難曰, 不能治其虛, 安問其餘”

16) 『靈樞·官能篇』: “雷公問於黃帝曰: 鍼論曰, 得其人乃

고 만물을 잃지 않아서 생기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 四時의 陰陽은 만물의 근본이므로 聖人은 봄, 여름에 陽氣를 기르고, 가을, 겨울에 陰氣를 길러서 그 뿌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함께 낳고 자라는 문에서 뜨고 가라앉으니, 그 뿌리를 거스른다면 밀동을 파 해쳐서 그 眞氣를 파괴할 것입니다. ‘道’에 대해서, 성인은 이를 행하고, 어리석은 이는 이를 위배합니다. 陰陽을 따르면 살고 거스르면 죽습니다. 따르면 다스려지고 거스르면 어지러워집니다. … 그러므로 성인은 이미 병든 것을 치료하지 않고 병들지 않았을 경우를 치료하며, 이미 어지러움을 다스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sup>17)</sup>”

라고 하였는데, 『四氣調神大論』의 내용은 陰陽의 상대적 관점과 함께 계절별로 드러나는 천지자연의 변화에 순응함이 養生을 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변화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 3. 여성성의 강조

17) 『素問·四氣調神大論』: “天氣, 清淨光明者也, 藏德不止, 故不下也。天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雲霧不精, 則上應白露不下。交通不表, 萬物命故不施, 不施則名木多死。惡氣不發, 風雨不節, 白露不下, 則菴藁不榮。賊風數至, 暴雨數起, 天地四時不相保, 與道相失, 則未央絕滅。唯聖人從之, 故身無奇病, 萬物不失, 生氣不竭。逆春氣, 則少陽不生, 肝氣內變。逆夏氣, 則太陽不長, 心氣內洩。逆秋氣, 則太陰不收, 肺氣焦滿。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氣獨沈。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故與萬物浮沈於生長之門。逆其根, 則伐其本, 壞其真矣。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道者, 聖人之行, 愚者佩之,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亂。反順爲逆, 是謂內格。是故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 此之謂也。夫病已成而後藥之, 亂已成而後治之。譬猶渴而穿井, 鬪而鑄錐, 不亦晚乎。”

“계곡의 神(신묘 막측한 변화)은 죽지 아니하니, 이를 일러 위대한 암컷이라고 한다. 위대한 암컷의 문은, 이를 일러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고 하니, 면면히 있는 듯하고 이를 써도 그칠 줄 모른다.<sup>18)</sup>”

라고 한 『老子』 6장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老子』전체에서는 陰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늘”, “비어 있음”, “숨어 있는 것”, “암컷”, “계곡” 등등의 강조로 인한 페미니즘적 사상의 강조들은 이전까지 “陽”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강조에 대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陰의 가치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陰”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을 낳을 수 있는 바탕이 “陰”이 됨을 거듭 말하여 무궁한 “生”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본문의 내용들은 달리 해석해 보면 이는 생식기의 묘사를 통하여 생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腎臟은 水液을 주관하니, 五藏六府의 정기를 받아서 저장하므로, 오장이 융성하여야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기백이 답하기를, ‘이는 天壽가 정도를 지나쳐, 脈氣가 늘 통하여 腎氣가 유여한 경우입니다.’<sup>19)</sup>”

라고 하였는데, 『內經』에서 “腎水”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腎水”와 “精”의 개념으로 서술한 내용들에서, ‘玄牝의 문이 닫히면 죽음이 이르는 것’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8) 『老子』: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六章,

19) 『素問·上古天真論』: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瀉 … 帝曰: 有其年已老, 而有子者何也。岐伯曰: 此其天壽過度, 氣脈常通, 而腎氣有餘也。”

이와 함께 腎氣가 유여하면 천수를 다하도록 맥이 常道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의 능력을 보 유함으로 보았다.

#### 4. 감각이 가지는 오류의 지적

“五色(현란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五音(난잡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五味(기막힌 고량진미)는 사람의 입맛을 어긋나게 한다. 말을 달려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이 발광하도록 하며, 언기 어려운 물건은 사람의 행동이 방해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의 腹(내부의 도덕)을 위하고 目(외물에 흔들리는 감각기관)을 위하지 않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sup>20)</sup>

라고 한 『道德經』 12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나 정상적 수준에서 벗어난 범위의 욕망들이 사람의 心身을 병들게 함을 말하여, “慾”의 세계를 떠나서 속마음이나 내실적 안념을 추구함이 바람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감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욕심을 유발하고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사람의 감각이 가지는 오류를 끼치는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 사람은 사물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事物을 수용하는 자세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素問·移精變氣論』에서

“듣기에 상고에 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오직 精神을 옮겨서 氣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며, 祝由를 할 따름이었었는데 … 안으로는 돌아보고 사모하는 얽매임이 없으며, 밖으로는 버슬을 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포부가 없었습니다. 이는 편안하고 조용한 세

상으로 사기가 깊이 침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성을 지닌 약이 환자의 내부를 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鍼石이 그 외부를 치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옮겨 추유를 할 따름이었습니다.”<sup>21)</sup>

라고 하였는데, 본 『移精變氣論』의 내용은 五藏의 正氣가 감정 등에 치우치면서 정상적 운동을 못하는 것을 감정을 다스림으로 인해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내외적으로 생기는 욕망이나 지배욕 등을 제거하는 것이 사기의 침범을 막는 길이 됨을 말하고 있다. 또, 『素問·湯液醪醴論』에서,

“옛부터 성인이 湯液과 醪醴를 만든 까닭은 때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 中古의 세상은 도덕이 다소 쇠퇴하여 邪氣가 매로 이르렀기에 그것을 복용하여야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금 세상은 반드시 독성이 있는 약을 제조하여 환자의 내부를 공격하고, 돌침과 침, 썩뜸 등이 그 외부를 치료합니다.”<sup>22)</sup>

라고 하였는데, 上古와 中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湯藥의 쓰임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이나 욕망, 경쟁 등이 없었던 상고 시대에 비해서 이런 정신적 고뇌가 많아 질수록 치료의 방편으로 湯藥이나 鍼石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1) 『素問·移精變氣論』：“黃帝問曰：余問古之治病，惟其移精變氣，可祝由而已。今世治病，毒藥治其內，鍼石治其外，或愈或不愈，何也。岐伯對曰：往古人居禽獸之間，動作以避寒，陰居以避暑，內無眷慕之累，外無伸宦之形，此恬憺之世，邪不能深入也。故毒藥不能治其內，鍼石不能治其外，故可移精祝由而已。當今之世不然，憂患緣其內，苦形傷其外，又失四時之從，逆寒暑之宜，賊風數至，虛邪朝夕，內至五藏骨髓，外傷空竅肌膚，所以小病必甚，大病必死，故祝由不能已也。”

22) 『素問·湯液醪醴論』：“帝曰：上古聖人，作湯液醪醴，爲而不用何也。岐伯曰：自古聖人之作湯液醪醴者，以爲備耳，夫上古作湯液，故爲而弗服也。中古之世，道德稍衰，邪氣時至，服之萬全。帝曰：今之世不必已何也。岐伯曰：當今之世，必齊毒藥攻其中，鍼石鍼艾治其外也。”

20) 『老子』：“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聾，五味令人口爽，馳騁畋獵令人心發狂，難得之貨令人行妨，是以聖人爲腹不爲目，故去彼取此。”「十二章」

## 5. 감각 밖의 세계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평이함(夷)이라고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므로 드물다(希)고 하며,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므로 은미하다고 하니, 이 세가지는 하나하나 따져서 물을 수 없으니, 혼재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위가 밝지 않고, 그 아래가 어둡지 않으며, 이어져서 이름할 수가 없어서 물이 없음으로 되돌아가니, 이를 형상이 없는 형상, 물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 이는 황홀함을 이르는 것이다.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르려 해도 그 뒤를 보지 못한다. 옛 도를 잡고서 오늘의 구체적 사물을 다스리고, 능히 옛날의 始原을 알게 되니 이를 일러 道의 버리라고 한다.”<sup>23)</sup>

라고 한 『道德經』 14장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밖의 세계를 일일이 구별하여 따질 수가 없으니 구별이 없이 이런 상태가 서로 섞여서 하나의 “實在하는 것”이 되며, 무어라 말할 수 없는 “道”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형상이 없는 듯한 형상이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狀”을 이루어서 이것이 惚恍의 경지, 즉, 너무 분화하여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동양철학의 “道”라는 것이 본래의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실재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1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파악은 의학에 있어서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즉, 앞서서 그 내용의 일부를 『老子』의 내용과 연관지어 살펴본 『素問·八正神明論』에서

23) 『老子』: “視之不見, 名曰夷, 聽之不聞, 名曰希, 搏之不得, 名曰微, 此三者, 不可致詰, 故混而爲一, 其上不徹, 其下不味, 繩繩不可名, 復歸於無物, 是謂無狀之狀, 無物之狀, 是謂恍惚,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後, 執古之道, 以御今之有, 能知古始, 是謂道紀.”(十四章)

“그 아득하고 아득한 곳을 관찰해 보건대, 形氣의 營衛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훌륭한 의공은 홀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공이 항상 먼저 그것을 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아득함에서 관찰한다고 합니다. … 보아도 드러나지 않으며, 맛을 보아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득하고 아득하다고 하니, 마치 神과 같이 어론거립니다. …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논함이며! 사람의 형체를 陰陽四時에 배합하고, 虛實에 응하며, 아득함을 기약하시니 夫子가 아니시라면 누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夫子께서는 자주 形과 神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형이라고 하고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sup>24)</sup>”

라고 하였고, 『素問·氣交變大論』에서

“제가 듣기에 하늘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응하고, 옛 일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징험하며, 기를 잘 말하는 사람은 물건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응함을 잘 말하는 사람은 天地의 조화와 함께 하며, 변화함을 잘 말하는 자는 신명의 이치에 통하니, 선생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지극한 도를 말하겠습니까.”<sup>25)</sup>

24) 『素問·八正神明論』: “觀其冥冥者, 言形氣榮衛之不形於外, 而工獨知之, 以日之寒溫, 月之虛盛, 四時氣之浮沈, 參伍相合而調之, 工常先見之, 然而不形於外, 故曰觀於冥冥焉。通於無窮者, 可以傳於後世也, 是故工之所以異也, 然而不見於外, 故俱不能見也。視之無形, 嘗之無味, 故謂冥冥, 若神勞難。帝曰: 妙乎哉論也, 合人形於陰陽四時, 虛實之應, 冥冥之期, 其非夫子孰能通之。然夫子數言形與神, 何謂形, 何謂神, 願卒聞之。岐伯曰: 請言形, 形乎形, 目冥冥, 問其所病, 索之於經, 慧然在前, 按之不得, 不知其情, 故曰形。帝曰: 何謂神。岐伯曰: 請言神, 神乎神, 耳不聞, 目明心開, 而志先, 慧然獨悟, 口弗能言, 俱視獨見, 適若昏, 昭然獨明, 若風吹雲, 故曰神。三部九候爲之原, 九鍼之論, 不必存也。”

25) 『素問·氣交變大論』: “余聞之善言天者, 必應於人, 善言古者, 必驗於今, 善言氣者, 必彰於物, 善言應者, 同天地之化, 善言化言變者, 通神明之理, 非夫子孰能言至道歟。”

라고 하였는데, 이상에서는 모두 감각 기관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氣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파악에서는 神明의 이치에 통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6. 道의 인식과정

“예전에 선비 노릇을 잘 한 사람은 은미하고 현묘하게 통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오직 알지 못하므로, 억지로 모습을 형용하는 것이다. 주저함이 마치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 같으며, 머뭇거림이 마치 사방을 두려워 하는 듯하며, 근엄하기는 마치 손님과 같으며, 틀어짐은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하다. 돈독함은 조각을 하지 않은 통나무의 질박함과 같고, 넓은 포용력은 마치 골짜기와 같으며, 혼연함은 마치 흐린 물과 같은 것이다. 누구라서 능히 탁한 상태에서 서서히 맑음으로 고요히 할 것이며, 누구라서 능히 편안함으로써 오래하여 천천히 살아가게 하겠는가. 이 道를 보전하는 자는 채우고자 하지 않으니, 오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능히 해져서 새로운 것을 이룬다.”<sup>26)</sup>

라고 한 15장은 “道”를 인식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알 수 없고, 표현이 안되는 경지, 표현이 불가능한 경지를 나타낸다. 억지로 형용하자면 조심스럽고, 엄숙하며, 얼음이 풀리듯 부드럽고, 순박하여 통나무(樸)와 같은 소박함을 지니고 있는 듯하고, 흐린 듯 뒤섞여 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道”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서서히 맑아지고 나타나는 “道”를 형용하여 이 도를 얻는 사람은 채우고자 하지 아니하며, 덮어서 새로운

것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바로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파악할 수 없고 실재를 볼 수 없는 “道”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이다. 현실을 의미를 가지게 하는 수단, 파악할 수 없는 실재에 대한 표현이나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정신에 융화시킬 수 있는 것이 4장에서 나타난 “和其光 同其塵<sup>27)</sup>”의 葆光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장에서는 道의 존재양상을 형용해 보고 있는 것이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무릇 자침의 진수는 반드시 먼저 神을 다스려야 하니, 五臟이 안정되고, 아홉 진단 징후가 갖추어진 후에야 시침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脈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 흉조가 관찰되지 않으며 내외의 징후가 서로 알맞으면, 결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우선 시하지 말고기의 왕래를 살펴서 환자에게 자침을 시행합니다. … 이를 일러 아득하다고 하니 그 형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모이는 것처럼 보이며, 기장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고, 이어서 그 氣가 날아감을 보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엎드려 있을 때는 가로켄 쇠뇌와 같다. 일어나는 방아쇠를 당김과 같이 신속합니다.”<sup>28)</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針法의 시행에서 여러가지의 脈象이 드러나지 않음과 그 가운데에

27) 和其光 同其塵 : 『道德經』 4장에서 “道, 沖而用之, 或不盈, 淵兮似萬物之宗,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湛兮似或存, 吾不知誰之子, 象帝之先.”이라고 하였는데, 빛이 너무 드러남을 감싸서 가리며, 세속과 먼지를 함께 뒤집어쓰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28) 『素問·寶命全形論』 : “帝曰: 願聞其道. 岐伯曰: 凡刺之眞, 必先治神, 五臟已定, 九候已備, 後乃存鍼, 衆脈不見 衆凶弗聞, 外內相得, 無以形先, 可玩往來, 乃施於人. 人有虛實, 五實勿遠, 五虛勿遠, 至其當發, 間不容脈, 手動若蓂, 鍼瀹而勻, 靜意視義, 觀適之變, 是謂冥冥, 莫知其形, 見其烏烏, 見其稊稊, 從其飛, 不知其誰, 伏如橫弩, 起如發機.”

26) 『老子』 :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夫唯不可識, 故強爲之容, 豫焉若冬涉川, 猶兮若畏四隣, 儼兮其若容, 渙兮若冰之將釋, 敦兮其若樸, 曠兮其若谷, 混兮其若濁, 孰能濁以靜之徐清, 孰能安以久動之徐生, 保此道者, 不欲盈, 夫唯不盈, 故能蔽而新成.” 「十五章」

서도 内外의 氣가 서로 통함을 나타내었다. 앞에서도 나온 “冥冥”처럼 감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가운데 실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靈樞·九宮八風』에

“바람이 그 거처하는 방향에서 불어 온 것은 實風으로 생을 주장하여 만물을 길러줍니다. 그 부딘히는 곳에서 불어온 것은 虛風으로 사람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죽음과 해를 입힘을 주관하는 것이니, 虛風을 삼가 살펴서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聖인이 날마다 虛邪를 피하는 道는 마치 화살과 날아드는 돌을 피하는 듯하여, 邪氣가 해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이르는 것입니다.<sup>29)</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이치가, 사람이 화살이나 돌을 피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성인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바람에 대해서도 그 파악에 애를 쓴 노력을 엿볼 수 있어서 『道德經』에서의 “現前實在”을 나타내는 道와는 조금 다른 “醫學의 道”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 인식의 기준 확보

“虛靈한 상태에 이르는 공부를 극진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독실하게 하면, 만물이 함께 일어날 때 내가 그 회복함을 관찰할 수 있다. 대저 사물이 번창하여 무성하지만 각기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니, 근원으로 되돌아감을 ‘고요하다’ 고 하니 이것이 ‘命을 회복한다’ 는 것이다. 命을 회복함이 항상됨이요 항상됨을 아는 것이 밝음이니, 항상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작위를 하면 흠하다. 항상됨을 알면 용납하고, 용

납하면 바로 공정한 것이다. 공정하면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왕이 되면 하늘이 되니, 하늘이 바로 道이며 道는 오래도록 하여 몸을 마치도록 위태롭지 않게 된다.<sup>30)</sup>”

라 한 16장의 핵심은 빈 상태를 극진히 하여, 고요함을 지키기를 독실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본래의 도의 상태, 즉, “復”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고요함을 확보하고, ‘지금 바로 여기’라는 이 자리에 있어서의 인식의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파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하여 포괄성과, “無限”과 “不竭”의 의미를 확보함을 말하고 있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四時의 陰陽은 만물의 근본이므로 聖인은 봄, 여름에 陽氣를 기르고, 가을, 겨울에 陰氣를 길러서 그 뿌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함께 낳고 자라는 문에서 뜨고 가라앉으니, 그 뿌리를 거스른다면 밀동을 파헤쳐서 그 眞氣를 파괴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성인은 이미 병든 것을 치료하지 않고 병들지 않았을 경우를 치료하며, 이미 어지러움을 다스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sup>31)</sup>”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聖인은 虛極하여서 正道를 지켜서 받아들임으로서 가혹한 질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道”는 사시의 陰陽의 순서에 맞추어 생활하는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9) 『靈樞·九宮八風』: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 主生長養萬物. 從其衝後來爲虛風, 傷人者也, 主殺, 主害者, 謹候虛風而避之, 故聖人日避虛邪之道, 如避矢石然, 邪弗能害, 此之謂也.”

30) 『老子』: “致虛極, 守靜篤, 萬物竝作, 吾以觀復, 夫物芸芸, 各復歸其根, 歸根曰靜, 是謂復命, 復命曰常, 知常曰明, 不知常, 妄作凶,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十六章」

31) 『素問·四氣調神大論』의 내용으로 앞서 제시한 내용과 같다.

8. 본성의 유지

“큰 도가 폐하여야 인의가 있게 되고, 알  
딱한 피가 나옴에 큰 속임이 있게 되었으  
며, 부자, 형제, 부부의 육친이 화합하지 못  
함에 효도와 자애가 있게 되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움에 충신이 있게 되었다.<sup>32)</sup>”

라고 한 『道德經』 18장의 내용은 이어 나오  
는 『道德經』 19장의 내용과 이어지며 역설적  
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大  
道廢”와 “智慧”들은 또한 일반적인 것이 아니  
라, 경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하겠다. 아  
울러 자기의 본성을 유지하는 자세를 강조하  
고 있다. 앞서 『道德經』 12장의 내용에서 말  
한 「移精變氣論」이나 「湯液醪醴論」의 내용이  
역시 上古時代를 이상적 세계로 간주해서  
“道”가 쇠함에 따라 병이 생기게 되었음과 질  
병의 치료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

9.朴의 상태 회복

“聖人인 케함을 끊고 꾀를 버린다면 백성  
들의 이익이 백배나 될 것이다. 이름뿐인  
仁과 義를 끊어 버린다면 백성들이 효도와  
자애를 회복할 것이다. 기교와 이익을 끊어  
버리면 도적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 세 가  
지는 문채를 내어 꾸미는 것이니 천하를 다  
스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귀결되는  
곳이 있도록 한 것이니, 칠하지 않은 흰 비  
단을 보고 막 베어낸 통나무를 안는 자세를  
지녀서 사사로운을 작게 하고 욕심을 작게  
하여야 한다.<sup>33)</sup>”

라고 한 『道德經』 19장의 내용 역시 『素問·  
上古天真論』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용이다. 그러므로써 “朴”의 상태를 회복함을

32) 『老子』：“大道廢有仁義，慧智出有大偽，六親不和有  
孝慈，國家昏亂有忠臣。”「十八章」

33) 『老子』：“絕聖棄智，民利百倍，絕仁棄義，民復孝慈，  
絕巧棄利，盜賊無有，此三者以為文不足，故令有所屬，  
見素抱樸，少私寡欲。”「十九章」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의 “文”은 나타나  
는 문채, 즉 언어로 표현됨이 겉과 속이 다르  
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언어 즉 名의 세  
계가 “常”에 뿌리를 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고정됨을 거부하는 자세

“쓸 데 없는 배움을 끊어버려야 근심함이  
없을 것이다. 빨리 대답하는 것과 천천히  
대답하는 것 서로의 거리가 얼마이며, 선과  
악이 서로의 거리가 어떠한가. 사람들이 두  
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  
만, 황막함이 그 끝이 없을 것이다. 못사람  
들은 즐거워하여 마치 소와 양, 돼지의 큰  
계물을 즐기는 듯하여 마치 봄에 누대에 올  
라가는 듯한데, 나는 홀로 무덤덤하게 감흥  
이 없어서 마치 어린아기가 방긋 웃지도 못  
하는 듯하고, 두둥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  
는 듯하다. 못사람들은 모두 남음이 있으  
되, 나만 홀로 빠뜨림이 있는 듯하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처럼 뒤섞여 있도다.  
세속 사람들은 밝고 밝지만, 나 홀로 어두  
운 듯하며, 세상 사람들은 캐문듯 잘 살피  
지만 나 홀로 침울하다. 고요하여 마치  
바다와 같으며, 획 바람소리가 그침이 없는  
듯하다. 못사람들은 모두 의도가 있는 듯  
하지만 나 홀로 무심하고 얹이 없으니, 나  
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먹여주는 어미  
를 구함을 귀히 여긴다.<sup>34)</sup>”

라고 한 『道德經』 20장은 고정됨, 고착됨을  
싫어하는 동양사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대  
비되는 상대적 가치의 인식에서 어떤 기준을  
버릴 수 있다면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34) 『老子』：“絕學無憂，唯之與阿，相去幾何，善之與惡，  
相去若何，人之所畏，不可不畏，荒兮其未央哉，衆人熙  
熙，如享太牢，如春登臺，我獨泊兮其未兆，如嬰兒之未  
孩，儻儻兮若無所歸，衆人皆有餘，而我獨若遺，我愚人  
之心也哉，沌沌兮，俗人昭昭，我獨昏昏，俗人察察，我  
獨悶悶，澹兮其若海，飜兮若無止，衆人皆有以，而我獨  
頑似鄙，我獨異於人，而貴食母。”「二十章」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 제시한 “絕學無憂”가 그 핵심이 된다고 하겠다. 경쟁을 유발하는 배움과 지식에 대한 거부가 위에서 살피본 『道德經』 19장의 내용에 이어서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인식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는 개념을 ‘한없이 커서 끝이 없고, 얼마지 않는 道의 세계’로 나타내었다. 그러면서 生의 근본이라고 보는 “食母”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食母”란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뜻으로 “復”이나 “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적 의미에서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 있다’는 개념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지극히 작은 것도 지극히 큰 것과 같아 질 수 있다는 것은 크고 작음의 비교를 떠나면 가능한 것이다. 인체가 소우주가 될 수 있는 것도, 동양철학의 모든 주제가 되는 “天人相應”이라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정지을 수 없는 “無限의 세계”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투영할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크고 작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現前實在”에서 실재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 11. 道의 모습

“위대한 德의 용모는 오직 道를 따른다. 도의 속성은 황홀하여 종잡을 수 없으니 그 속에 형상이 있고, 황홀하여 그 속에 물이 있으며, 어둡고 컴컴하여 그 속에 존재의 精髓가 있으니, 그 정수는 매우 참되다. 그 가운데 믿을 수 있음이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명예가 떠나가지 않아서 여러 시작을 관찰하여 보살피니, 내 어찌 여러 시작이 그러함을 알겠는가. 바로 이 道 때문이다.<sup>35)</sup>”

35) 『老子』：“孔德之容，惟道是從，道之爲物，惟恍惟惚，惚兮恍兮，其中有象，恍兮惚兮，其中有物，窈兮冥兮，其中有精，其中有信，自古及今，其名不去，以閱衆甫，吾何以知衆甫之狀哉，以此。”「二十一章」

라고 한 21장에서는 다시 “道”의 모습을 형용하여 표현되지 않으며 인식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표현불가능하며 의식속에 잡히지 않는 “道”를 문제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재하는 것, 그것이 道인 것이다. 아득하고 구분이 안 되면서도 그 중에 오히려 진실된 것이 있으며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 그 실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이 있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認識의 세계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道에 의해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양철학에서 존재론보다 인식론적인 내용이 중시되는 것도 이런 배경들 때문일 것이다. 인식하는 내용이 존재자가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인식 밖의 내용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피본 『道德經』 14장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 12. 고정되지 않는 道의 세계

“완곡하여야 온전히 보존되고, 급할 수 있어야 끝나지 않으며, 아래에 자리 잡아야 채워지고, 해져야 새롭게 되니, 적으면 얻을 수 있지만 많으면 미혹될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가장 작은 하나를 품고도 천하의 법도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밝으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드러나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이 있게 되고, 스스로 으시대지 않으므로 장구한 것이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서 그와 더불어 다투려 하지 않으니, 예전에 이른 바 급하여야 온전하다는 것이 어찌 빈 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sup>36)</sup>”

36) 『老子』：“曲則全，枉則直，窪則盈，弊則新，少則得，多則惑，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不自見，故明，不自是，故彰，不自伐，故有功，不自矜，故長，夫唯不爭，故天下莫能與之爭，古之所謂曲則全者，豈虛言哉，誠全而

라고 한 『道德經』 22장에서는 고정되지 않는 道의 세계를 나타내었다. “지금 바로 여기”라는 “現前實在”의 상태를 “道”의 자리에서 파악하는 자세를 서술하고 있다. 경쟁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있는 현존과 실존의 파악에서 이를 위해서 “抱一”과 “樸”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꾸미지 않는 본바탕, 그것이 認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 13. 道의 작용

“道는 항상 이름이 없는 것이다. 통나무는 비록 작게 보이지만 天下에서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제후와 왕이 만약 이를 자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이니, 천지도 서로 조화되어야 단 이슬을 내리는 것이며, 백성들도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평등히 다스려진다. 처음 인위적 제도를 만듦에 이름이 있게 되었으니, 이름이 또한 있을 진댄 또한 장차 그칠 것을 알아야 하니,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 비유컨대 도가 천하에 있음은 마치 시내, 제국의 강과 바다와의 관계와 같다.”<sup>37)</sup>

라고 한 『道德經』 32장에서는 道는 名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道가 천하에 작용하는 것은 계곡의 물이 강하로 흘러 들어감과 같이 천하의 사물에 하나하나 미치지 않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를 형용하여 “樸”이라 하였고 이는 만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며, 『莊子』에서의 “其小無內”, 『中庸』의 “費而隱”을 해당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素問·四氣調神大論』

歸之.”<sup>37)</sup>「二十二章」

37) 『老子』：“道常無名，樸，雖小，天下莫能臣也，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賓，天地相合，以降甘露，民莫之令而自均，始制有名，名亦既有，夫亦將知止，知止，可以不殆，譬道之在天下，猶川谷之於江海。”<sup>37)</sup>「三十二章」

에서 四時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자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III. 結 論

본 논문에서는 『道德經』이 담고 있는 인식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黃帝內經』의 의학적 내용들과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구별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道德經』에서는 인식론적인 道의 핵심이 드러난다. “道”는 실재를 표현하여 드러내면 늘 그러한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는 『內經』에서 氣의 흐름과 陰陽五行의 운행속성을 표현한 내용과 연관지을 수 있다.
2. 『道德經』에서는 만물의 상대성과 그로 인해서 본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개념들이 서로 의존적 관계에 의해서 相生, 相成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대표적 病因 病理 학설과 연관해 볼 수 있다.
3. 『老子』전체에서 陰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성성의 강조는 陰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內經』에서도 잘 드러난다.
4. 고정됨을 거부하는 『道德經』의 자세는 대비되는 상대적 가치를 중시한다. 동양적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지극히 큰 것과 같아 질 수 있다는 것은 크고 작음의 비교를 떠나면 가능한 것이다. 인체가 소우주가 될 수 있는 것도, 동양철학의 모든 주체가 되는 “天人相應”이라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5. 『道德經』에서는 감각 밖의 세계가 구별이 없이 섞여서 하나의 實在하는 것이 되며, 道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內經』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6. 『道德經』에서는 빈 상태를 극진히 하여 '지금 바로 여기'라는 이 자리에 있어서의 인식의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파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內經』에서 四時의 陰陽의 순서에 맞추어 생활하는 자체로 나타난다.

### 參考文獻

1. 王弼, 老子注, 臺北, 藝文印書館印行, 1976.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 朴贊國, 黃帝內經素問注釋(上),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8.
5. 徐大椿, 道德經註 上下, 欽定四庫全書 1055, 臺北, 商務印書館, 1988.
6. 金容沃, 노자와 21세기 [상], [하], [3], 서울, 통나무, 1999.
7. 宋恒龍, 지금 바로 여기, 서울, 동인서원, 1999.
8.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9. 金學主, 老자와 道家思想, 서울, 明文堂, 1988.